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월드컵 축구를 보면서

권 경 우
성북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러시아 월드컵 결승 진출팀이 확정되었다. 일찌감치 우승 후보로 거론되었던 프랑스와 매 경기 치열한 접전을 펼친 크로아티아가 그 주인공이다. 한국은 16강 탈락이라는 부진한 성적을 거뒀지만 세계 1위 독일을 이겨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이번 월드컵의 특징은 월드컵 사상 최연소 골을 기록했고 프랑스를 결승으로 이끌어 전 세계 스타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음바페 선수를 보더라도 '세대교체'가 두드러진다.

그렇다면 많은 스포츠 중에서 축구의 매력은 무엇일까? 축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는 스포츠이다. 그 배경에는 축구공 하나만 있으면 공간과 사람의 한계를 넘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축구라는 스포츠의 근본적인 매력이 있다고 본다. 그 외에 아프리카 등 지구상에서 낙후된 지역에서 세계적 스타로 부상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수단을 제공하는 측면과 각국에서 진행되는 프로축구 리그를 비롯한 산업적 측면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선수 몸값 상승과 광고에 따른 스포츠용품사의 문제, 월드컵과 같은 메가 스포츠 이벤트의 부정적 측면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이뤄지고 있다.

아울러 축구라는 스포츠에 담겨 있는 본질적인 측면을 들여다보는 것도 필요하다. 축구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골을 넣는 것이다. 모든 전략과 전술, 선수들의 배치와 움직임은 그 목표에 맞춰져 있다. 이것만 놓고 보면 축구는 지극히 단조로운 스포츠가 된다. 어쩌면 지루하고 식상한 스포츠가 되기 십상이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수많은 사람들이 축구를 좋아하고 열광한다. 축구를 보면서 환호하고, 낙담하고, 웃고, 운다.

분명한 사실은 축구의 매력이 골을 넣는 것에만 있지 않다는 점이다. 어느 하나로 귀결되지 않는 다양한 매력이 오히려 사람들을 열광하게 만드는 것이다. 무엇보다 규칙이 많지 않다는 점이 축구라는 스포츠를 이해하거나 즐기는 데 있어서 장점으로 작용한다. 공을 중심으로 선수들이 움직이면서 자연스럽게 흐름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공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몸싸움, 그리고 직접 공을 갖지 않은 선수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는 것이 일종의 재미이다. 단순히 골을 넣는 것만 생각하면 재미가 줄어들지만 축구장 전체 맥락에서 선수들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전혀 다른 즐거움이 생기는 것이다.

또한 축구 경기는 최소한의 규칙으로 운영되면서 역설적으로 관람객의 참여를 극대화한다. 매회 단막극을 만들어가는 야구와는 달리 축구는 전후반 90분이라는 시간 동안 한 편의 드라마를 완성한다. 축구 경기라는 드라마가 펼쳐지는 동안 관람객들은 깊은 몰입감을 통해 경기에 즉각적으로 반응한다. 자신들의 관점에서 매 순간마다 다양한 의견을 쏟아내는 것이다. 이는 축구 경기가 갖는 역동성과 몰입감을 극대화하는 과정이다.

스포츠 경기에서 선수들의 신체가 직접 부딪히는 일이 많을수록 오히려 규칙은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매순간 판단하고 결정하기보다는 그 상황 자체의 맥락과 흐름을 지켜보는 과정이 따르는 것이다. 즉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움직이고 부딪히는 지점에서는 객관적 판단보다는 상호 협의나 조정이 필요한 것이다. 이때 판단할 수 없거나 판단을 멈추는 일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 상황을 포기하거나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상황을 적극적으로 내 것, 혹은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외부의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손쉽게 판단하게 되었다.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일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한다. 하지만 세상 일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일을 해 본 사람은 안다. 누군가를, 어떤 일을 옳다 혹은 그르다고 판단하는 일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 그리고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물론 판단 불능 혹은 판단 중지가 어떤 불의나 잘못에 대해 눈을 감는 것과는 다른 일이다. 축구를 할 때 하나의 공을 두고 두 선수가 치열하게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매 순간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따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법이나 제도 등 규칙을 많이 만든다고 해서 더 좋은 사회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필요 이상의 많은 규칙은 공동체를 규율이 지배하는 억압적인 공간으로 만들 가능성이 많다.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최소한의 규칙이 작동하면서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논의하고, 갈등하고, 화해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감내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축구 경기는 판단 중지와 개입의 수준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스포츠이다.

종교칼럼

광주시의회 의원들께 보내는 편지

장 헌 권
광주 서정교회 담임목사

"가슴 두근거리는 그날 투표하세요.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동네. 유월의 따뜻한 햇볕같이 우리 동네 민주주의는 더욱 아름다워진다." 지난 6·13 전국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에서 홍보한 내용입니다.

광주광역시 의원으로 당선된 의원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동구 이홍일 의원, 박미정 의원, 서구 장재성 의원, 정순애 의원, 송형일 의원, 황현택 의원. 남구 김용집 의원, 김점기 의원, 임미란 의원, 북구 반재신 의원, 이경호 의원, 신수정 의원, 조석호 의원, 김동찬 의원, 김나윤 의원. 광산구 김익주 의원, 정무창 의원, 김학실 의원, 김광란 의원, 이정환 의원. 그리고 비례 라현 의원, 최영환 의원. 장연주 의원. 이들 23명이 새로 선출됐습니다.

축하 인사를 드려야 하지만 축하보다는 실망과 분노가 앞섭니다. 필자는 이번 주 폭염에도 불구하고 시의회를 조용히 다녀왔습니다. 의회 앞 마당 잔디밭에 땀으로 목욕을 하는 어머니와 같은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의원 여러분은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회 홍보관이 공사 중인 가운데 의원실이 배정돼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의회를 개회하자마자 정회와 산회 등 파행을 보면서 앞날에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목사인 필자를 불편하게 생각할 의원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면 한마디로 제8대 의회는 세상에 허다한 욕 중에 가장 심한 욕인 '싸가지 없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싸가지 싹수가 없다'는 말은 한 마디로 미래가 없다는 말입니다.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주변에 '싸가지가 없는' 사람들이 정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남의 고통이나 불편함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편리와 이익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일이 거론할 수 없을 정도로 빈번하게 싸가지 없는 경우를 마주치게 됩니다." 이는 필자의 말이 아니라 인기 잡지 가운데 하나인 샘터 8월 호에 발행인이 '인성'이라는 제목으로 쓴 글입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글입니다. 의원 여러분 정말 '싸가지 있는' 광주시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야 합니다.

양보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의원 활동비 등 엄청난 권위와 돈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득권과 의회 안에서의 갑질은 그 자체로 싸가지 없는 일입니다.

촛불 혁명으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는 시대정신을 외면하고 의회다운 의회가 아니라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는 의원 여러분을 생각하면, 저는 광주 시민이 된 것이 심히 부끄럽습니다. 솔직하게 의회가 이처럼 파행되는 이유는 한마디로 의장과 부의장 그리고 상임위원장 등 내부의 권력다툼 아닌가요? 의장단 자리 다툼이라는 사실을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 한심한 것은 외부의 유력 정치인의 입김으로 감투 나눠먹기라고 하는 말이 들리는데, 과연 그 외부 인사가 누구인가요?

광주 시민의 입김을 두려워하십시오. 의원 대다수가 23개 의석 중 22석을 싹쓸이 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마치 집안 싸움으로 비쳐집니다.

개회와 동시에 정회와 자동 산회. 초등학생도 그런 유치한 회의는 하지 않습니다. 어떤 언론은 그런 의회를 누더기 의회라고 합니다. 민주당 외부 인사가 왜 개입을 하는가요? 계보 정치가 부적절한 헤게모니 싸움을 부채질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합니다. 시민들에게 표를 간절히 애걸하던 그런 초심을 회복하시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갈라디아서 5장15절)라는 성경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의원 여러분은 자랑스러운 광주시의회 의원입니다. 정의로운 광주에 걸맞은 의원이 되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시민을 섬기는 의회다운 의회, '싸가지 있는' 의회, 미래와 비전이 있는 희망찬 의회가 되길 기도하며 의원 여러분께 편지를 드립니다. 폭염에 건강 유의하십시오.

기 고

작은 학교 살리기, 지자체가 앞장서라

전 진 희
순천도사초등학교 행정실장

요즘 사라지는 학교에 대한 보도를 종종 접한다. 올해 2월에는 한 TV프로그램에서 경북 금천초 문명분교 4학년 학생의 인터뷰가 방영됐다. 전교생이 10명인데, 폐교되어 다음달에는 인근 학교로 전학을 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전남 강진북초등학교에는 3년째 입학생이 없다는 내용도 있었다.

2018학년도 '입학생 없는' 초등학교는 전국 120여 곳이다. 전남에서는 본교 6곳, 분교 42곳의 초등학교가 입학생이 없고, 최근 3년 동안 입학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도 8곳이나 된다. 대부분 농어촌에 있는 학교들이다.

만혼과 저출산, 도시 이주 등으로 전남의 학생 수는 2010년 27만 명에서 2017년 21만 명으로 6만 명이 감소했다. 최근 10년간 소규모 학교 통폐합 수는 164개교에 이른다.

학생 수 60명 이하의 학교를 '작은 학교'라고 칭한다. 지난 3월 현재 전남에 작은 학교 수는 초등학교 489개교 중 241개교로 49%, 중학교 256개교 중 124개교로 48%에 해당한다. 교육부의 2015년 이전 기준으로 보더라도 전남의 초·중학교 절반은 통폐합 대상이다.

가장 큰 문제는 학교가 없어지면 마을도 사라진다는 점이다. 농어촌 작은 학교는 지역 공동체의 교육, 문화, 생활의 구심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은 학교 살리기는 교육청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작은 학교를 살리기 방법으로는 첫째 주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생태적이고, 자연친화적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다. 예를 들면 아토피 치유학교, 해양레포츠학교, 습지생태 체험학교 등 도시에서는 할 수 없는 특성화 학교를 지정·운영하여 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지역의 브랜드를 학교에 접목하면 지역에 대한 이미지 제고에도 효과적일 것이다.

둘째, 읍·면·동 단위에 마을 학교 업무지원센터를 두고, 마을 학교 운영 확대를 통한 지역 공동체의 교육 참여 유도이다. 지역의 인적 자원과 시설을 활용하여 목공, 염색, 화초 기르기, 요리, 글쓰기 등 학생 및 지역민 교육을 통해 학교와 학생과 지역주민이 소통하며 협력하는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셋째, 국회 상임위에서 계류 중인 농어촌학교 지원 특별법의 제정에 대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 농어촌학교 교육 환경 개선, 교직원 우대, 농어촌학교 출신 학생 대학 특별전형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도시와의 형평성 문제로 더 이상의 진척이 어려운 상황이다. 전남도가 국회와 정부에 적극적으로 법 제정을 건의하고, 지역민에게도 홍보를 통해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는 한편 지역 국회의원과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진다면 법 제정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주택 지원 사업을 통해 농어촌으로 학생 유입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지자체에서 작은 학교 교육 이주 희망자들에게 학교 주변 빈집 활용이나 연립 주택을 건립하여 무상이나 저렴하게 임대 주택을 지원해 귀농·귀촌의 정주 조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제주도의 경우는 지금까지 제주시 지역 8개 마을에 공동 주택 16동 111세대 건립을 지원했으며, 서귀포시는 지역 4개 마을에는 공동 주택 6동 35세대와 19개 마을 71개소의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원 조건은 학생 수 60명 이하 학교에 다니겠다고 희망한 가구이며, 입주 조건은 반드시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거주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적인 효과가 있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 한다.

작은 학교를 살리는 것은 학교와 교육청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다. 학교의 존치는 단지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사회의 문제이기도 하므로 농촌 유학생 및 농촌 이주민 증가를 위한 지자체의 협조는 반드시 필요하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 2200 654 / 팩스 062 222 4918 / e메일 opinion@kwangju.co.kr

社說

고교 시험지 유출 철저히 수사 엄중한 처벌을

광주의 한 사립 고교에서 3학년 기말고사 시험지가 유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유출된 시험지는 국어·미적분 등 5개 과목으로 학생들은 재시험을 치르게 됐다.

시험지 유출은 학부모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과 행정실 직원이 공모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의사인 학교운영위원장이 아들의 내신 성적을 올릴 욕심에 시험지를 빼내 줄 것을 요구했고 이에 행정실 직원이 응하면서 범행이 이뤄졌다. 학부모의 과한 욕심과 행정실 직원의 도덕 불감증이 빚은 결과였다.

이번 시험지 유출 사건은 학사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와 영향력 있는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의 유착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통상 고교에서는 시험을 치를 때 평가계에서 전 과목 시험 문제를 수집해 교감과 교장의 결재를 맡아 행정실이나 인쇄실에 보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험문제지 보관 장소는 이중의 시건장치가 설치돼 출입이 엄격히 제한된다. 하지만 이 학교에서는 행정실 직원이 학부모의 요구대로 과목별로 시험지를 빼돌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유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줬다. 당사자들은 금전 거래가 없었다고 하지만 학사 행정에 깊숙이 관여하는 영향력 있는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의 유착 관계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다.

이번 사건으로 해당 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정작 더 걱정스러운 것은 광주 지역 고교에 대한 이미지 추락으로 수시모집 등 대입 전형에서 학생들이 입게 될 피해다.

그렇지 않아도 2년 전 모 여고에서 발생한 학생부 및 성적 조작 사건으로 광주 지역 학생들이 피해를 본 기억이 상당수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트라우마로 남아 있는 터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은 철저한 수사와 함께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 광주시교육청도 사후약방문 식의 감사가 아닌 근본적인 예방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실적 위주 '아니면 말고 식' 감사 안 된다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공무원들의 부당한 행정 행위를 적발했다며 검찰에 수사 의뢰했으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시 감사위원회가 일부 감사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사 의뢰를 한 데다 대상에 고위 공무원들이 포함돼 있어 실적을 올리기 위해 무리수를 썼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 감사위원회는 친환경자동차산업 투자 유치와 관련해 자문 법무법인 선정 입찰 과정에서 부당 개입한 사실을 적발했다며 2개월여 전에 3·4급 공무원과 광주그린카진흥원 관계자 등 네 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그러나 광주지검 특수부는 두 달이 넘는 수사를 거쳐, 입찰 과정에서 평가 기준·배점·평가위원 선정·심사 기준 등을 조사한 결과 불공정하다고 판단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고 최근 밝혔다.

광주시는 대기업과의 자동차 합작법인 설립 문제에 대한 법률 자문을 해 줄 법무법인 우선협상 대상자를 광주그린카진흥원의 입찰공고를 통해 선정했다. 그러나 시 감사위원회는 "1억 7000만 원 상당의 미래형 자동차사업 관련 자문 법무법인 선정 입찰에 공무원들이 부당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었다. 시 감사위는 애초 자동차밸리 기부금 사용 내역과 메드라인 투자 정보 유출 등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가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에서 또다시 입찰 관련 업무까지 감사했으나 별다른 소득을 올리지 못했다. '억지 감사'라는 눈총까지 사고 있는 것은 그 때문이다.

시 감사위의 성역 없는 감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시민들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시 감사위의 일련의 감사 행태는 광주시의 대외적인 이미지 실추는 물론 자칫 투자 유치 실패로 이어질 뻔했으며, 관련 공무원들의 명예마저 크게 훼손했다. 다시는 이처럼 실적 위주의 '아니면 말고 식' 억지 감사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無等鼓

세리머니

아르헨티나 전설의 스트라이커 가브리엘 오마르 바티스투타. 벼락같은 슈팅과 뛰어난 골 결정력으로 '바티골' 이라는 애칭을 얻었다. "바티~ 골입니다." 그가 공을 잡으면 중계방송 아나운서가 미처 이름을 다 부르기 전에 골을 성공시킨다 해서 붙여진 별명이다.

그는 이탈리아 세리아A 하위 팀인 피오렌티나에서 9년간 뛰었다. 수많은 명문 클럽의 러브콜을 거부하고 득점왕에도 올랐지만 스쿠데토(우승 팀이 유니폼에 붙이는 방패 모양의 문양)를 한 번도 차지하지 못해 결국 AS로마로 이적했다. 이적 후 친정 팀과의 첫 경기. 결승골을 넣고도 기뻐하지 않고 골 세리머니 없이 묵묵히 자리로 돌아가는 그를 보고 팬들은 새로운 별명을 붙여 주었다. '최후의 로맨티시스트'. 이적한 선수가 친정 팀과의 경기에서 골을 넣으면 세리머니를 하지 않는 것이 하나의 불문율처럼 된 것은 이 경기 이후부터다.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는 지구촌을 열광시킨 멋진 골과 함께 다양한 골 세리머니가 펼쳐지고 있다. 자긍심의 높이만큼 뛰어오르는 호날두의 '호우세리머니'가 있는가 하면 메시의 하늘을 향한 손짓(축구선수의 길로 인도해 준 할머니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도 있다. 수아레스는 셔츠 속에 공을 집어넣고 아내의 셋째 아이 임신을 자축했고, 골든볼(MVP)이 유력한 크로아티아의 모드리치는 두 팔을 쭉쭉 뻗어 관중들과 교감하는 세리머니를 펼친다.

아트사커의 지휘자 그리즈만은 3골 2도움으로 프랑스를 결승에 올려놓았다. 그는 오른손으로 '엘'(L)자를 만든 뒤 양 다리를 번갈아 들어 올리는 독특한 세리머니를 갖고 있지만 8강전에서는 골을 넣고도 담담한 표정을 지었다. 경기 뒤 인터뷰에서 그는 "우루과이에는 친구들이 있어 그들에게 경의를 표했다. 기쁨은 절반만 가졌다"고 말해 에이스의 품격을 보여 주었다.

러시아 월드컵 결승에는 프랑스와 크로아티아가 올랐다. 그리즈만과 모드리치 두 에이스 중 누가 자기만의 세리머니를 펼치며 FIFA컵을 들어 올릴까. 메시와 호날두 두 신들의 10년 아성을 허물고 발롱도르를 차지할 인간계 최강은 누가 될까. 지구촌의 이목이 두 선수에 쏠려 있다. /유제관 편집1부장. 부국장 jkyou@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정치부	220-0632	여론매체부	220-0652		〈FAX 222-8005〉		〈FAX 222-0195〉
경제부	220-0663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사회부	220-0664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전남본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